

버스·지하철·따릉이·한강버스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고 서울'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서울 교통수단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 'GO SEOUL (고 서울)'을 제작해 공개했다. 교통수단을 브랜드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고만 보고도 서울 내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구축했다"라며 서울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고 서울'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로 통행이 가능한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4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교통수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의성 증대하는 등 세계적인 교통수단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고 서울'의 브랜드 심볼은 '가다'를 의미하는 'GO'와 무한대 기호(∞)를 콜라보해 만들어졌다. 서울 교통이 무한대로 연결되고 발전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도 담겼다. 특히 '이동'과 '연결', '지속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체계 통합브랜드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고 서울' 발표 영국 런던의 '라운델' 벤치마킹 4개 이동수단에 브랜드 순차적용

능'을 키워드로 심볼을 제작, 탄소절감의 고유 의지도 담았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고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기후동행카드에 담을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 4개

이동수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이동수단에 ▲고 버스(GO BUS) ▲고 메트로(GO METRO) ▲고 리버(GO RIVER)버 ▲고 바이크(GO BIKE) 등 서브 브랜드도 구축하고, 각 서브 브랜드 이미지를 각 교통수단에 순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 서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국 런던 '라운델' 등 도시를 대표하는 해외 교통시스템 통합브랜드를 벤치마킹했다. 1910년 영국 런던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로 구축된 '라운델'은 100여 년간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제작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반영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영국 런던보다 경쟁력 있고, 세계적이라 할 만 하지만, '라운델'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이 하나의 로고로 상징화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라며 "'고 서울'의 탄생으로, 이 로고만 보면 세계인이 대한민국 서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연상 작용을 할 수 있게 돼 서울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본격 시행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개최 올해 765억, 5년간 4225억 투입

올해부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글로벌 산학협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맞을 올렸다.

서울시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제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서울시 라이즈(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형 라이즈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면서 시는 올해 국비 565억, 시비 200억 등 765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225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라이즈'를 추진한다.

서울형 라이즈 계획은 ▲글로벌 대

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등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산학협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등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전략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대학과의 공유·협력을 확대하는 초광역 사업을 도입한다.

먼저,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대학 10개교와 본 글로벌 기업 40개를 육성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서울의 전략산업들과 연계함으로써 첨단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집중 육성 22개 대학 ▲산학협력 고급인재 1300명(2029년까지) ▲창조산업 인재 500명(2029년까지) 등 육성과 양재, 홍릉 등 AI·BIO 클러스터와 연계해 산업생태계 확장을 시도한다. /이현진 기자

세한대 등 11곳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교육부, 불법체류 문제 등 대응 어학연수과정 13곳도 1년간 제한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등 국내 대학 11곳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오는 2학기부터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인증대학은 대학 121개교, 전문대학 22개교, 대학원대학 15개교 등 학위과정 158개교다. 어학연수과정도 대학 91개교, 전문대학 11개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총 10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혜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3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어학능력 기준 50% 이상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혜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받는다.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美 하버드대서 강연

한국의 교육개혁 주제 26일 진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선다.

미국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 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공교육플랫폼 소개와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약 2시간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퇴

고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4일,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도 내 학교 방문 일정에 참가한 후 임 교육감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미래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교육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경기교육의 모습을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면서 임 교육감에게 특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고대 교직원, 박물관에 유물 700여점 기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직원이 고려대 박물관에 유물 700점 이상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정가는 약 1억7000만원이다.

익명의 고려대 교직원이 기부한 유물에는 집안에서 보관 중이던 간찰집 6점을 포함해 고서, 한국 근현대화,

반닫이 및 병풍 등의 민속품이 포함돼 있다.

익명의 고려대 교직원은 "집에서 대대로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인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박물관에 기

증하게 됐다"라며 "해당 자료가 고려대 도서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의 연구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증해 주신 유물이 기부자의 뜻처럼 의미 있게 활용돼 고려대 박물관이 계속해서 대학 박물관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25일(화) 음력: 1월 28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7:09, 해질: 18:22

지역별 날씨: 연천 -5/7, 동두천 -5/7, 가평 -7/7, 파주 -6/7, 서울 -2/7, 양평 -5/8, 수원 -1/7, 용인 -1/7, 평택 -4/9, 인천 0/6, 백령도 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관세 피하려면 中에 관세 때려라...미국, 멕시코 압박”
▲동성결혼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득남...“이런 사랑 처음” /사진 뉴스1

▲엔비디아, 증시 판 흔들까...오는 26일 실적 발표
▲독일 총선 집권당 심판...중도보수 대승·극우당 주류입성

▲일·필리핀 국방장관 회담...방산 수출 고위급 협의체 신설
▲미시바 내각 지지율 40%대 횡보...미일회담 평가는 엇갈려